추석 명절 앞둔 전통시장 활기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일 오전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이 차례상에 올릴 생선과 과일 등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재참사’ 장성요양병원 618억 환수 나선다

경찰, 허위서류·부당급여 적발…당국에 폐쇄조치 통보

면허 임대 등 ‘사무장 병원’…4명 구속 40여명 불구속 입건

지난 5월 화재로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이 600억원대 요양급여를 반환하고 강제 폐쇄절차를 밟게 됐다.

장성경찰서는 1일 효사랑 요양병원 등 관련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수 대상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모(구속 기소)씨가 설립한 2개 의료법인과 광주와 장성에서 운영한 산하 5개 병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와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 등이다.

경찰은 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에 들어가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병원들은 애초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설립 후에도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임대하는 등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는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 1~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는 날에는 간호 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을 짓고도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급여 등을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요양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노려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병원을 설립해 서류상으로 환자를 주고 받기도 했으며 병원 직원까지 허위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정황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명의만 빌려준 5명의 이사들은 이사회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허가권자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을 구속하는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화재가 난 병원에 대해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요양병원과 광주시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통해 방화범 김모(82)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하고 40여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설립 당시부터 서류상으로만 정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실제로 해당 병원은 관련법을 어긴채 설립, 운영돼 왔기 때문에 그간 받아 챙긴 요양급여와 환자 부담금 모두가 불법의 산물이라보고 전액 환수 조치토록 한 것”이라며“앞으로도 편법으로 운영된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요양 급여 등 부당 청구를 막고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능 필수 한국사 20개 문항·50점 만점으로

2017학년도부터 절대 평가

국어·수학영역 수준별 시험 폐지

현재 고1 학생들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인 한국사 시험은 4교시에 탐구영역과 함께 실시된다. 문항 수는 20개이고, 만점은 50점이다. 대학입학전형의 정시모집에서는 동일 모집단위 내 분할 모집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과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각각 발표했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국어는 공통으로,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 나/가형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수준별 A/B형 시험은 완전히 폐지돼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기 전인 2013학년도 체제로 돌아간다.

필수가 된 한국사는 4교시 탐구영역과 함께 시행돼 4교시 시험시간이 30분 늘어난다. 문항 수는 20개이고, 만점은 50점이다.

한국사 성적은 다른 영역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된다. 1등급과 2등급을 분할하는 점수는 40점이고, 2등급 밑으로는 점수가 5점 낮아질 때마다 1등급이 떨어져 9등급으로 평가된다.

2017학년도 수능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셋째 주인 17일에 시행된다.

대교협은 ‘3년 예고제’ 시행에 따라 이날 처음으로 ‘201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입전형 간소화, 우선선발 폐지, 대학별 고사 지양 등 교육부의 기존 정책들이 유지된다.

단, 2016학년도까지는 정시모집에서 대규모 모집단위에 허용됐던 동일 모집단위 내 분할모집(가나·가다·나다·가나다)이 2017학년도부터 전면 금지된다. ‘군’ 구분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05 해짐 18:59 달뜸 12:59 달짐 23:35

반갑지 않은 ‘큰 비’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50~150㎜.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리고비	20/26	보 성	흐리고비	17/24
목 포	흐리고비	19/25	순 천	흐리고비	19/25
여 수	흐리고비	21/24	영 광	흐리고비	19/25
나 주	흐리고비	18/25	진 도	흐리고비	18/24
완 도	흐리고비	19/24	전 주	흐리고비	19/26
구 례	흐리고비	17/25	군 산	흐리고비	20/25
강 진	흐리고비	18/24	남 원	흐리고비	18/25
해 남	흐리고비	18/24	흑산도	흐리고비	20/24
장 성	흐리고비	17/2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먼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1.0~3.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동~남동	0.5~1.5
	먼바다	동~남동	1.0~2.0	남동~남	1.0~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6:39	11:53
	19:27	--:--
여수	01:04	07:10
	13:53	20:09

◇생활지수

식중독	80
운동	40
빨래	70

◇주간 날씨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20/26	21/25	20/26	19/27	20/28	20/28	19/27

‘대박’ 노려 복권 1400장 훔쳤지만…

‘쪽박’ 당첨금에 결국엔 철장신세

광주지역 편의점 돌며 상습절도 50대 덜미

“1000장쯤 되는 복권을 훔쳐서 긁는다면 적어도 한 건은 대박을 치겠지….”

대박을 쫓아 무려 1400장에 이르는 복권을 훔친 50대 남성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전과 16범 김모(54)씨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간 것은 지난 1월 말께. 절도죄로 광주교도소에서 4년의 형기를 꽉 채우고 출소한 지 1주일 여 흐른 겨울날이었다.

편의점에 들어선 김씨는 종업원 손모(여·44)씨에게 인사를 건넨 뒤, 연방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를 찾아달라”, “××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종업원 손씨가 창고로 모습을 감춘 사이 김씨는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복권 뭉치를 들고 그대로 줄행랑쳤다. 첫 범행으로 450장(시가 22만5000원)에 이르는 즉석복권을 모두 긁었지만 당첨금은 만원을 넘지 못했다. 허탈함도 잠시, 복권으로 인생 후반부를 역전시키고자 했던 김씨는 꿈을 꺾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가 지난 7월 말까지 광주지역 편의점 8곳을 돌며 복권을 훔친 것은 총 1380장.

복권을 훔칠 때마다 옷차림에 변화를 주고 모자, 마스크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애썼지만 김씨는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가 워낙 절도 전과가 많았고 범행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살아서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어 복권 당첨에 집착하게 됐다”면서도 “복권을 많이 훔치면 그 중 하나는 대박 날 줄 알았는데 5000원 넘게 당첨된 것도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다”며 푸념을 늘어놨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